

## 전주시, 조선시대 옛모습 되찾는다

역사문화 되찾기 '속도'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풍패지관 주변 정비 등 추진

전주시가 올해 전라감영 복원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풍납문과 전주부성에 대한 학술조사에 나서는 등 조선시대 역사문화 되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올해 역사문화 되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1단계 공사 △풍납문 및 전주부성 일부 복원 △전주풍패지관 주변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전라감영 주요건물 복원과 함께 △내삼문 및 흔적남기기 공사 △실감형 콘텐츠 제작 △전라감영 복원 공사 준공식 △감영 관련 유물 구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앞서 시는 전주문화유산연구원과 함께 전주부성(全州府城) 동편부(풍납문~서문~북문 구간) 성과 추정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추진, 한국전통문화전당 북동편 주차장 부지에서 일제강점기에 철거된 조선시대 전주부성 성과 기초부분의 흔적을 확인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일제강점기에 철

거된 조선시대 전주부성(全州府城)의 일부분을 체계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주풍패지관(보물 제583호)의 서익헌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등 풍패지관 주변도 정비해 조선시대 옛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어나가고 있다.

동시에, 경기전 수문장 교대식과 수복청 공연, 달빛기행 '왕과의 산책' 등 문화유적과 연계한 전주만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꾸준히 확충, 체류형·재방문형 여행이 활성화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역사문화 되찾기 프로젝트가 궤도에 오르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전주한옥마을 경기전과 풍납문, 전라감영, 풍패지관, 전주부성 등으로 이어지는 조선시대 역사문화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는 경기전과 풍패지관 등 조선시대 왕권을 상징하는 왕(王)의 도시이자 동화농민혁명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끈 민(民)의 도시이기도 하다"며, "오랜 역사가 담겨있는 다양한 문화재와 역사유적을 체계적으로 복원·관리하고 이를 활용한 전통문화콘텐츠를 확충함으로써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글로벌 문화관광도시인 전주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일제강점기에 철거된 조선시대 전주부성 성과 기초부분의 흔적을 확인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일제강점기에 철

거된 조선시대 전주부성(全州府城)의 일부분을 체계적으로 복원할 계획

## 전주국제영화제 '지프지기' 350여명 모집

(재)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를 함께 만들어갈 '지프지기(지원봉사자 명칭)'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관객서비스팀, 디자인팀, 홍보미디어팀 등 9개팀 23개 분야로 총 350여 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영화제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영화제 기간 중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모집 기간을 늘리고 다

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선발된 지원활동가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교통비, 유니폼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또 근무 종료 후에는 편수 제한 없이 영화 관람도 할 수 있다.

지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월 6일까지 전주국제영화제 지원활동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3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모집 기간을 늘리고 다



입춘첩(立春帖) 쓰는 전주향교 유림들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로 봄에 접어든다는 뜻을 지닌 입춘(立春)을 다섯 앞둔 30일 전북 전주시 전주향교에서 유림들이 대문 앞에 붙일 입춘첩(立春帖)을 정성스럽게 쓰고 있다. 입춘첩에는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불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길 기원합니다.) 등 문구를 써 대문 입구에 붙이려 한 해의 축원을 바라는 풍습이다.

## 2018 전북 사회조사 “지역발전 위해 경제·새만금 개발 우선”

전라북도 30일 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사회변화 의식을 조사한 2018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북도 사회조사는 가구·가족, 소득·소비, 고용·노사, 복지, 사회참여 분야와 전라북도민의 특성항목 등 총 35개 조사지표에 대해 도내 14개 시·군 1만3,515가구(응답자 2만3,136명)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 조사한 결과보고서이다.

보고서는 전북연구원 등 각급 연구기관에 제공되어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등 각종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부간 가사분담은 아직도 공평하지 않고, 부모님 부양은 '가족+정부+사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다.

가사분담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인이 주로하고 남편이 분담해야'는 46.5%, '공평하게'는 32.4%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가사분담은 '부인이 주로하고 남편 분담'이 50.5%, '공평하게'는 17.7%로 조사되어, 가사는 여전히 부인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도, 보고서 발표... 도민들 “부부간 가사·양육 부담 필요”

도민의 부모님 부양에 대한 견해는 '가족+정부+사회'가 해야 한다는 응답이 53.3%로 조사되었다.

다문화 가구에 대한 긍정인식 24.1%에 불과하지만, 다문화 가정 우선 지원 사항으로는 다문화 가정 인식개선이라고 응답했다.

다문화 가구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서 긍정응답(매우 관심+ 비교적 관심)은 24.1%로 부정응답(대체로 관심 없음+전혀 관심 없음) 30.2%에 비해 낮게 나왔다.

반면 다문화 가구원을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이 28.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도민의 37.7%가 부채가 있으며, 주된 부채이유는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 대출로 조사되었다.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은 공기업, 국가기관으로 꼽혔으며, 직업의 안정성을 직업선택의 가장 큰 고려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만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근무하고 싶은 직장을 묻는 질문에 28.0%

10.0%p 감소, 20만원을 빌릴 수 있다

는 응답이 67.5%로 2016년 조사 73.6%보다 6.1%p 감소, '이야기 상대가 있다'는 응답이 71.3%로 2016년 조사 78.0%보다 6.7%p 감소하였다.

사후 장례방법 선호도 조사결과 화장 후 자연장 45.4%, 화장 후 봉안 43.1%로 응답하여 화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88.5%로 나타났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와 새만금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36.5%가 경제 분야에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우선 추진돼야 할 개발정책은 새만금 개발(46.8%)이라고 응답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방예산 확대(39.1%), 주민참여 확대(32.1%)로 조사되어 지방자치의 성공요소는 지방예산 확대인 것으로 인식된다.

임상규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이 체감하는 효과 높은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확정

새만금 하늘길이 새롭게 열립니다!

전라북도 새만금이 국제공항과 함께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웅비합니다.

전북대도약의 힘찬 날개- 새만금국제공항

아름다운 생명山河, 천년전북!

전라북도